

# 대학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

-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Printed Music in University Libraries

한 경 신(Kyung-Shin Hah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악보자료의 관리현황 |
| II. 악보자료의 관리     | 1. 연구방법 및 내용    |
| 1. 악보자료의 선정 및 수집 | 2. 관리현황 분석      |
| 2. 악보자료의 조직      | IV. 요약 및 결론     |
| 3. 악보자료의 이용서비스   |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자료 중 1차자료로서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악보자료의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악보자료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악보자료 관리에 대하여 선정 및 수집·조직·이용서비스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현재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의 악보자료 관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후, 현재 악보자료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악보자료, 악보자료관리, 음악자료관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base for the rational management of printed music as an important primary source of music materials.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election and acquisition, organization, user services for the management of printed music are investigated. Then the present situation for management of printed music of university libraries in Daejeon and Chungnam are surveyed. Finally, the special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management of printed music are presented.

Keywords: University Library, Printed Music, Management of Printed Music, Management of Music Materials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ks0330@hnu.kr)

• 접수일: 2010년 8월 23일 •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0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 I. 서론

악보는 음악자료 중 주로 인쇄에 의한 기록물로,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서 음악 특유의 기호를 통해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즉 악보는 청각적이고 순간적인 음을 가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모든 음악활동의 근거가 되는 주요한 음악자료이다. 따라서 악보자료는 작곡자와 연주자 사이에서 음악을 실현시키는 매개체로서 음악의 연주·감상의 근거가 되며 또한 기억·보존·학습 등의 목적으로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1차자료로 음악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오늘날 음악의 창작활동은 사회적·문화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공연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악보를 비롯한 음악문헌·녹음자료·비디오자료·전자자료 등의 음악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중 전 세계의 악보생산량 역시 방대한 양이 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에 대한 관리와 활용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악활동의 성장속도에 비해 악보자료의 소장처구명은 물론 체계적인 수집·정리·이용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악보를 취급하고 있는 음악도서관이나 각종 관련 기관들에서 조차 악보의 관리, 즉 수서·정리·이용·보존상의 시스템이 제각각이다. 이는 음악자료 중 특히 악보자료가 서지통정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판이 가지각색이며 가격이 높고 서지사항의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등 도서관자료로서 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오늘날 음악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악보자료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최대한의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는 시급한 문제이며, 음악을 비롯한 우리의 예술·문화의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 된다.

악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기존의 국내연구는 이민정(1990)의 『악보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sup>1)</sup>뿐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자료로서 악보자료의 합리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국내 주요 4개 대학도서관 및 3개 교향악단의 악보자료 관리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악보량의 절대적 부족, 서지통정 및 주문·정리의 어려움, 음악에 대한 주제전문지식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악보자료의 중심 공공자료관 설립, 악보자료의 서지제어문제, 악보자료생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각종 음악도서관간의 협력, 국제교류 등을 제안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안점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것으로 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 관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관련된 연구로 악보자료 관리 중 조직부문에 관한 연구가 정재영·남태우(2002)<sup>2)</sup>와 한경신(2007)<sup>3)</sup>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음악자료 중 녹음자료의 관리 및 정리

1) 이민정, 악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99).

2) 정재영, 남태우, "KCR4판 초안 제5장 '악보'에 대한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9권(2002).

에 관한 김옥진(1991)<sup>4)</sup>을 비롯한 오지연(1998),<sup>5)</sup> 정옥경(1992)<sup>6)</sup>에 의한 연구가 있다. 국외연구로는 Carol June Bradley(1966)<sup>7)</sup>를 비롯한 Richard F. French와 Michael Ochs(1991)<sup>8)</sup> 등에 의한 매뉴얼 형태의 여러 단행본이 있다. 그리고 악보자료의 관리 중 수서·정리·보존 및 봉사의 각 부문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1차자료로서 악보자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도서관자료로서 악보자료 관리상의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대학도서관 중 음악과 관련된 학과나 학부가 있는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악보자료의 관리현황을 설문지법을 중심으로 면담방법을 병행하여 선정 및 수집·조직·이용서비스면에서 조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관리현황 결과의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우리의 악보자료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악보자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상의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악보자료는 인쇄악보자료로 한정한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악보를 비롯한 비인쇄 유형의 악보는 아직 대학도서관의 악보장서로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서관에서 악보자료 관리를 위한 각종 표준이나 규칙에 따른 정확한 관리와 최대한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악보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음악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에서도 악보자료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악보자료의 관리

### 1. 악보자료의 선정 및 수집

도서관에서 악보자료의 선정 및 수집업무는 도서를 비롯한 다른 음악자료와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악보자료의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다른 도서관자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선정 및 수집을 위해서는 악보의 발행 및 유통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

pp.141-146.

- 3) 한경신,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p.231-256.
- 4) 김옥진, "음악도서관 음향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연구지(송의여전), 제16집(1991), pp.57-68.
- 5) 오지연, 서울시내 도서관의 음반자료실과 음반정리현황에 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8).
- 6) 정옥경, "녹음자료의 정리에 관한 연구," 인천전문대논문집, 제18집(1992), pp.183-198.
- 7) Carol June Bradley ed., *Manual of Music Librarianship*(Ann Arbor, Michigan : Music Library Association, 1966).
- 8) Richard F. French and Michael Ochs, *Music Librarianship in America*(Cambridge, Mass. : Eda Kuhn Loeb Music Library, Harvard University, 1991).

는데, 이들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보자료는 총보·날장악보·파트보·악보책·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며, 특히 앙상블·관현악·합창곡 등은 일반적으로 총보와 파트보가 함께 수록되어 발행된다. 둘째, 동일한 곡이 다수의 출판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편곡·편집 등에 의해 다수의 판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셋째, 별도의 단일악보 외에도 선집이나 전집형식으로 하나의 자료안에 여러 작품이 포함되어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발췌곡의 경우는 보다 큰 규모의 작품 중 일부가 별도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악보자료는 주로 소수의 음악전문출판사나 발행사에 의해 집중적으로 생산되며, 종교음악·한국음악 등 특별한 분야에 한정하여 출판하는 경우도 많다. 다섯째,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요구되는 클래식음악의 악보는 출판비용에 비하여 그 수요가 제한되어 있어 외부의 원조없이 그 발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여섯째, 클래식음악의 악보자료는 절판율이 높아 리프린트 악보발행사업이 활발하다.

더욱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는 악보자료에 대한 서지제어활동은 다른 도서관자료에 비하여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악보자료는 옛 작품의 가치성이 높고 최신성을 잃지 않는 영구적인 음악분야의 1차자료로 이들에 대한 서지도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미발행악보의 발간은 서지제어활동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은 각국의 국가서지를 비롯한 악보출판사목록, 음악도서관의 장서목록, 시대별·악기별·작곡가별·음악형식별 서지 등의 발간형태로 이루어져 왔다.<sup>9)</sup>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이들 서지활동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선정을 담당하는 사서는 이들 서지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음악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악보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구입을 비롯한 기증·교환·대여·자체제작 및 복사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주로 구입을 통해 이루어진다.<sup>10)</sup> 국내 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 수집을 위한 구입은 국내의 악보출판사 또는 음악출판사나 국내·외의 악보 및 음악 전문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수집하는 클래식음악분야의 구입은 외국의 음악출판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국내·외의 악보전문대행사를 통하게 된다. 이는 그 수요가 많지 않아 국내출판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클래식음악분야의 악보자료는 초판의 절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리프린트 발행사업이 활발하다. 따라서 역시 리프린트출판사나 대행사를 통해 구입하게 된다.

순수음악분야의 악보자료를 생산하는 음악전문출판사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독일의 Breitkopf & Härtel·Peters·Schott·Bärenreiter·Hemle, 영국의 Novello·Boosey & Hawkes·Oxford

9) 한경신, “악보자료의 서지제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9. 3), p.11.

10) 이민정(1990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에 위치한 주요 음악대학도서관과 교향악단에서의 악보자료 수집방법은 95% 이상이 구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Press, 미국의 Schirmer · Presser · Carl Fischer, 오스트리아의 Universal, 프랑스의 Durand · Heugel · Salabert · Edition Russe de Musique, 이탈리아의 Ricordi, 헝가리의 Budapest 등이 있다.<sup>11)</sup> 국내의 경우는 현대음악출판사 · 세광음악출판사 · 태림출판사 · 유니온악보출판사 · 삼호출판사(삼호뮤직) · 수문당 · 음악춘추사 · 재순악보출판사 · 후반기출판사 · 한국음악사 · 아름출판사 · 음악세계 등이 있다.

악보자료의 전문대행사로는 국외의 경우 독일의 Otto Harrassowitz · C.F. Peters, 미국의 E.F. Kalmus · Eugene Baily · Broude Brothers · G. Schirmer, 프랑스의 MAX ESHIG, 일본의 YAMAHA, 音樂之友社 등이, 국내의 경우 대한음악사 · 한국음악사 · 내외음악사 · 현악사 · 삼익악기사 · 중앙악기사 · 음악플러스 · 교보문고 등이 있다.

## 2. 악보자료의 조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를 위한 조직은 대체로 일반도서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료조직에 대한 이해를 이중적으로 하지 않고 통일을 기함으로써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사회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화된 자료조직을 통해 도서관간의 협력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악보자료는 자료의 특성상 음악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악보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조직, 즉 분류 · 배가 · 목록 및 검색방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에서 악보자료의 분류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DDC · LCC · KDC 등 일반도서를 위해 사용하는 분류표를 악보자료에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둘째, McColvin분류표 · Dickinson 분류표 등 악보나 음악자료를 위해 마련된 특수분류표를 사용하는 방법, 셋째, 그들의 악보장서만을 위해 고안된 자체도서관의 분류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Olga Buth는 일찍이 악보의 서가배열을 위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크기 · 체제 · 알파벳순 배열 · 연주수단 · 형식 · 내용 · 언어의 구분 · 역사적 시대와 관련된 형태 · 작품번호를 들며, 이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악보자료의 분류계획에 사용된다고 하였다.<sup>12)</sup> 이들 요소들은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표와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류 및 서가배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악보자료의 배가방법에는 1) 악보자료만을 별도로 배가하는 방법, 2) 악보자료 · 악보책 · 음악도서를 함께 배가하는 방법, 3) 악보자료를 비롯한 녹음자료 · 음악도서 등 모든 음악자료를 함께 배

11) D. W. Krummel, "Music Printing and Publishing,"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New York : Marcel Dekker, 1976), Vol.18, p.490.

12) Olga Buth, "Scores and Recording," *Library Trends*, Vol.23, No.3(1975), p.428 참조.

가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에 대해 별치기호를 음악자료 전체에 사용하거나 악보자료만을 위한 별치기호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보자료는 음악분야의 1차 자료로서 악보자료를 연주한 녹음자료와 그를 해석한 음악도서를 종합적으로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되, 형태에 따라 음악도서로부터 별치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sup>13)</sup> 사료된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의 목록은 악보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원활한 접근 및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악보자료는 그 자료가 표현할 수 있는 서지정보의 수준이 다른 도서관자료들과 다르고 접근요소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목록작성시 악보자료에 대한 표준서지기술을 준수함으로써 기술상의 표준화를 이루고, 악보자료 서지정보의 상호교환 및 협력망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ISBD(PM)을 기초로 한 KCR4 제5장 악보, AACR2R 제5장 Music의 기술규칙을 중심으로 KORMARC(통합서지용)의 음악/녹음자료(MU)와 MARC21의 Music에 따른 정확한 기술이 요구된다.

악보자료 목록시 다른 도서관자료와 구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주요 기술요소에는 자료유형표시·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자료의 특성사항)·통일표제·녹음자료와의 관계·ISMN 등의 표준번호·발행처번호나 플레이트번호·특정자료종별표시 등이 있다. 또한 주기사항으로는 악곡형식과 연주수단에 관한 주기·기보법 주기·연주시간 주기 등이 있다.

목록을 통한 악보자료의 검색방법으로는 작곡가명·작사자명·곡명·통일표제·악곡형식·연주수단·주제명·분류기호·키워드·발행연도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악보자료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접근점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의 악보자료접근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악보자료의 이용서비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악보자료의 보존 및 이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인쇄자료인 단행본의 것과 유사하나, 악보자료만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악보자료의 이용을 위한 열람방법은 단행본과 달리 대부분 폐가제로 운영되며 대출 역시 그 책수와 기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악보자료는 특히 저작권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 분실시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점, 연습이나 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훼손율이 크다는 점,<sup>15)</sup> 다양한 크기로 인해 쉽게 흩어지고 사장되기 쉬우며, 특히 연주용 세트의 경우 한 파트의 분실이 전체를 못 쓰게 만들고 대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의 국외판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sup>16)</sup>

13) Redfern Brian L, *Organising Music in Libraries* (London : Clive Bingley, 1978), p.17.

14) 한경신,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전계논문, p.235.

15) 이민정, 전계논문, p.69.

16) 상계논문, pp.74-75.

악보자료는 특히 낱장악보나 총보와 파트보 세트의 경우 보관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낱장 악보는 분실염려 때문에 대체로 폴더나 봉투 혹은 보관함에 보존하거나 특별한 제본방법을 사용하여 보존한다. 그리고 총보와 파트보 세트는 분실에 대비 총보와 파트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제본하여 보존한다. 또한 총보의 표지 안쪽 주머니의 폴더에 보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주목적의 경우 한 작품에 대한 모든 파트보는 총보와 함께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본시 각 파트보가 별도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악보대 위에 항상 펼쳐 있어야 하는 연주용악보와 오선지 위의 손가락 번호·활표시 및 프레이즈표기 등의 각종 마킹(marking)을 요하는 연주용 및 학습용악보는 악보의 손상을 쉽게 한다.<sup>17)</sup> 따라서 이를 위한 제본 및 보호장치가 요구된다.

악보자료 이용을 위한 봉사활동으로는 단행본을 비롯한 다른 도서관자료와 마찬가지로 참고·정보서비스, 복사서비스, 신착악보자료안내, 희망악보자료신청서운영, 미소장 악보자료에 대한 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대학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의 이용자는 다른 음악자료에 비하여 주로 음악 전공학생 및 전공교수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에 대한 이들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사서는 문헌정보학 뿐만 아니라 악보의 출판 및 유통·음악서지 등 음악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악보자료에 대한 도서관간의 상호협력활동은 최대한의 악보자료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제관련기구들을 통한 상호교류 역시 악보자료의 봉사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의 악보자료 선정 및 수집을 비롯한 조직·이용 및 봉사 등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사서의 자질에 대하여 일찍이 A. M. Guy & H. F. Wolfgang은 3가지의 자질, 즉 음악주제에 관한 지식, 서지적 문헌정보학에 관한 지식, 언어능력과 기계장치조작기술 등의 부수적 자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sup>18)</sup> 악보자료는 음악정보의 1차자료로 음악분야의 가장 기본자료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악보자료 및 음악자료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의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음악주제전문 사서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Ⅲ. 악보자료의 관리현황

#### 1. 연구방법 및 내용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악보자료 관리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연감』<sup>19)</sup>을 통해

17) Alice Carli, *Binding and Care of Printed Music* (Lanham, Maryland : The Scarecrow Press, 2003), p.1 참조.

18) A. M. Guy and H. F. Wolfgang, "Training the librarian for rapport with the collection," *Library Trends*, Vol.23, No.3(1975), pp.541-546 참조.

19)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 2009(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pp.456-457.

대전·충남지역의 47개 대학도서관(전문대학도서관 제외) 중 음악과 관련된 학과나 학부가 있는 대학의 15개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중 도서관이 아닌 관련 학과에서 악보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1개 대학과 열람실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2개 대학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조사대상 도서관은 12개 도서관이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면담방법을 병행하면서 2010년 3월 중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예비조사를 거쳐 악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크게 4개 부문, 즉 일반사항·선정 및 수집·조직·이용서비스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이 중 일반사항에는 6문항, 선정 및 수집부문에는 9문항, 조직부문과 이용서비스부문에는 각각 10문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학도서관 악보자료 관리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

조사부문	세부항목
일반사항부문	공식명칭 및 설립연도
	악보자료 관리부서
	악보자료 장서현황
	악보자료장서 장르비율
	악보자료 담당사서 및 전문영역
	악보자료 관리를 위한 자동화시스템
선정 및 수집부문	연간 악보자료 구입비 및 구입량
	악보자료 선정 기준 및 위원회의 유무
	악보자료 선정시의 주요 역할자
	악보자료 선정도구
	악보자료 입수방법
	악보자료 수집경로
	악보자료 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출판사 및 대행사
	이용하는 출판사나 대행사의 선정이유
조직부문	절판된 악보의 수집방법
	사용하는 분류표 및 목록규칙
	악보자료 분류표와 기타 음악자료 분류표와의 관계
	악보자료 분류시의 문제점
	악보자료 별칭기호의 사용여부 및 별칭기호
	악보자료 배가방법
	목록의 유형
	검색시 악보자료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유형
	목록을 통해 제공하는 검색방법
	악보자료 기술시 다른 도서관자료와 구별되는 기술요소
악보자료 목록시의 문제점	



조사부문	세부항목
이용서비스부문	악보자료의 열람방법
	1일 평균 악보자료 이용자수
	악보자료 열람시간,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악보자료 연체 및 분실처리
	날장악보 보관을 위한 방법
	악보자료를 제본하는 경우
	악보자료를 위한 서비스 활동
	미소장 악보자료에 대한 서비스
	타 기관과의 악보자료 협력활동
	악보자료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사서의 자질

## 2. 관리현황 분석

### 가. 일반사항

일반사항에서는 도서관의 공식명칭 및 설립연도를 비롯 악보자료의 관리부서·장서현황·담당 사서 및 그들의 전문영역·관리를 위한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도서관의 공식명칭 및 설립연도는 각 대학교에 따른 도서관 및 학술정보처로 각 대학의 설립연도와 같았다. 각 도서관의 조직상 악보자료의 관리부서는 음악도서실/음악자료실이 4개교(30.0%)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분야 열람실과 대출실이 각각 2개교, 문헌정보팀·멀티미디어실·참고도서실·학술정보팀이 각각 1개교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악보자료를 별도의 음악자료로 다루지 않고 일반자료와 함께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자료의 장서현황은 먼저 장서량에 있어서 약 700권부터 18000권에 까지 상당히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음악관련 학과수의 다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보와 파트보 세트·날장악보 및 피스·미니어처스코어·악보책 등 다양한 악보의 유형별 장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관은 4개교(30.0%)에 불과했다. 또한 악보의 장서량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답하기 어려워하는 도서관도 4개교(30.0%)나 있었다. 다음으로 악보자료 장서의 장르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악보장서의 장르별 현황은 '클래식', '종교음악', '대중음악', '한국음악' 순으로 응답한 7개 도서관(58.3%) 모두 클래식음악이 대부분의 장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 및 예술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각 학과의 지원을 위한 것에서 기인한 것일 것이다. 또한 종교음악·대중음악·한국음악 등 각 대학의 음악관련 학과에 따른 특성이 장르별 장서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악보자료 장서의 장르별 비율현황

대학도서관	장르별 비율(%)					계
	클래식	종교음악	대중음악	한국음악	기타	
A	17.3	1.7	3.8	9.1	68.1	100.0
B	99.0	-	-	-	-	99.0
C	80.0	20.0	-	-	-	100.0
D	99.0	0.5	0.5	-	-	100.0
E	91.7	5.2	2.7	0.2	-	99.8
F	80.0	20.0	-	-	-	100.0
G	70.0	15.0	15.0	-	-	100.0

악보자료의 담당사서 및 그들의 전문영역은 〈표 3〉과 같다. 악보자료 담당 사서수는 2개 도서관이 2명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모두 1명으로 총 14명이었다. 이들 중 '2급 정사서'가 가장 많은 8명(57.1%)이며 '1급 정사서'(3명), '기타'(2명), '준사서'(1명) 순이다. 이들의 전문영역은 '문헌정보학'이 12명(85.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음악'과 '기타'가 각각 1명씩이다. 또한 이들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14명의 담당사서 중 8명만이 응답하였는데, '10-15년' 사이가 6명(62.5%), '15년 이상'·'5-10년'·'5년 이하'가 각각 1명씩으로 대체로 도서관에서의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담당사서 및 전문영역

악보자료 담당사서								
사서직급	사서수	백분율(%)	근무경력	사서수	백분율(%)	전문영역	사서수	백분율(%)
1급정사서	3	21.4	5년 이하	1	12.5	문헌정보학	12	85.7
2급정사서	8	57.1	5-10년	1	12.5	음악	1	7.1
준사서	1	7.1	10-15년	5	62.5	기타	1	7.1
기타	2	14.3	15년 이상	1	12.5	계	14	99.9
계	14	99.9	계	8	100.0			

악보자료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은 도서관자동화통합시스템 내에서 악보자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Sky Blue가 2개교 XMLAS·Sky net·Volcano I·SLIMA·ODIS가 각각 1개교로 응답하였다.

나. 선정 및 수집

선정 및 수집부문에서는 악보자료에 대한 연간 구입비 및 구입량·선정기준 및 위원회의 유무·선정시의 주요 역할자·선정도구·입수방법·수집경로·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출판사 및 대행

사·이용하는 출판사 및 대행사의 선정이유·절판된 악보의 수집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악보자료의 연간 구입비 및 구입량은 도서관에 따라 많은 편차를 나타내었다. 먼저 연간 구입비에 있어서 국내악보에 대해서는 56,000원부터 5,000,000원까지, 국외악보에 대해서는 192,000원에서 4,000,000원까지로 총 연간 구입비는 248,000원부터 8,5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간 구입량에 있어서는 국내악보는 6권에서 500권까지 국외악보는 4권에서 250권까지로 총 연간 구입량은 10권에서 610권까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대상 도서관의 대학에 음악관련 학과가 1개인 대학으로부터 단과대학으로서의 음악대학이 있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정기준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도서관 중 1곳(8.3%)만이 위원회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도서관은 관련학과 '교수'의 추천이나 '이용자'의 희망자료를 통해 악보자료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보자료 선정시 주요 역할자에 대한 응답은 <표 4>에서와 같이 역할순위 1위에서 전문가(음악교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용자·사서 순이었다. 이것은 악보자료의 주 이용자인 음악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의 요구와 악보자료 서지도구의 부족으로 인한 사서역할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악보자료 선정시의 주요 역할

역할자	주요 역할순위			
	1	2	3	4(기타)
담당사서	-	2	5	3
담당 팀장이나 관장	-	-	-	1
선정위원회	-	1	-	-
이용자	2	5	1	2
전문가(음악교수, 음악가 등)	7	-	1	3

악보자료 선정을 위한 선정도구에서는 도서관에서 특히 사용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악보자료 선정이 주로 담당교수 등의 전문가와 전공 이용자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보자료에 대한 서지제어 미비로 담당사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정도구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담당사서가 선택하는 경우는 주로 악보대행사의 목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악보자료의 입수방법은 <표 5>에서와 같이 응답한 10개 도서관(83.3%)에서 89.3%가 '구입'이었고, 나머지 10.7%는 '기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도서관(50.0%)은 100% 구입하고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1개 도서관이 90%의 기증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외의 '교환'·'자체 제작'·'복사'·'대여' 등에 의한 입수방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악보자료의 입수방법

입수방법	도서관										총계 (%)
	A	B	C	D	E	F	G	H	I	J	
구입(%)	90.0	100.0	99.0	95.0	100.0	100.0	100.0	100.0	99.0	10.0	89.3
기증(%)	10.0	-	1.0	5.0	-	-	-	-	1.0	90.0	10.7

악보자료의 수집경로는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출판사나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국내와 국외 출판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5개교로 총 4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국외 출판사나 대행사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악보자료의 수집경로

수집경로	도서관수	백분율(%)
국내 출판사나 대행사를 이용	5	41.7
국외 출판사나 대행사를 이용	-	00.0
국내 및 국외 출판사나 대행사를 이용	5	41.7
기타	2	16.7

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출판사나 대행사에 대해서는 응답한 7개교(58.3%)에서 총14개의 출판사 및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복수응답을 한 도서관은 4개교로, 2개를 응답한 도서관이 2개교, 3개와 4개를 응답한 도서관이 각각 1개교였다. 이들은 모두 국내 출판사와 대행사만을 응답하였으며, 이 중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출판사나 대행사순으로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출판사 및 대행사

출판사 및 대행사	이용 도서관수	백분율(%)
교보문고	4	57.1
대한음악사	2	28.6
음악플러스	2	28.6
중앙아트	1	14.3
제일서적	1	14.3
동양물산	1	14.3
범한서적	1	14.3
음악춘추사	1	14.3
자체 교내서적	1	14.3

악보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는 ‘교보문고’가 4개교(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한음악사’와 ‘음악플러스’가 각각 2개교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아트’·‘제일서

적'·'동양물산'·'범한서적'·'음악춘추사'·'자체 교내서점'이 각각 1개교였다. 이들 출판사나 행사를 선정할 이유에 대하여는 10개 도서관(83.3%)이 응답하였으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우선순위 및 도서관수에서 가장 으뜸이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 및 도서관 수를 고려할 때 '계속 이용해 왔기 때문'이나 '저렴한 수수료'가 다음 순위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서의 편리성'과 '입찰에 의한 업체'를 선정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8> 현재 이용하는 출판사나 대행사의 선정이유

출판사나 대행사의 선정이유	선정이유 순위			
	1	2	3	4(기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5	2	-	2
저렴한 수수료	2	-	1	1
명성과 평판	-	2	-	-
유사기관의 추천	-	-	-	-
계속 이용해 왔으므로	-	4	1	2
선택가능한 범위의 제한	-	-	2	-
기타	-	1	-	1

절판된 악보자료의 수집에 대하여는 '원문복사'·'대행사요청'·'대행사에 요청하나 계속 절판시 입수포기'·'가급적 다른 출판사의 동일 곡 악보구입'이 각각 1개 도서관이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전혀 구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클래식음악 악보자료는 그 절판율이 높다. 따라서 악보공급자에 관한 정보파악 등을 통해 절판된 악보자료의 수집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다. 조직

조직부본에서는 악보자료에 대해 사용하는 분류표 및 목록규칙·악보자료와 기타 음악자료 분류표 및 목록규칙과의 관계·분류시의 문제점·별치기호의 사용여부 및 별치기호·배가방법·목록의 유형·검색시 사용하는 자료유형·목록을 통한 검색방법·목록기술시 다른 도서관자료와 구별되는 기술요소·목록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악보자료의 조직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표와 목록규칙은 1개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91.7%)이 도서관의 다른 일반자료와 같은 분류표 및 목록규칙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사용하는 분류표는 'DDC'가 9개교(75.0%)로 가장 많았으며, 'KDC'가 1개교, 'DDC와 KDC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2개교였다. 특히 DDC는 도서관에 따라 20판, 21판, 22판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용하는 목록규칙은 'KORMARC 기술규칙'이 6개교(50.0%), 'KCR4'가 5개교(41.7%), '자체목록규칙'이 1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4개교(33.3%)는 'AACR2R'을 같이 적용하고 있었다.

악보자료 분류시의 문제점으로는 'DDC 음악분류표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분류표에서의 악곡형식구분의 세분화의 한계'를 각각 2개교에서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악보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과악의 어려움', '음악적 지식의 부족', '관리하는 음악대학도서관 측에서의 학과 편의상 재분류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악보담당사서에게는 사용하는 문헌분류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음악 및 악보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별치기호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7개교(58.3%)였다. 이 중 '악보자료에 대한 별치기호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4개교(33.3%)였으며, M이 2개교, SC와 MB가 각각 1개교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악보자료와 함께 모든 음악자료에 대한 별치기호를 함께 사용한 경우'는 3개교였으며, M·MU·MB를 사용하고 있었다.

악보자료의 배가방법에서는 '악보자료를 별도로 배가'하는 도서관이 6개교(50.0%)였고, '악보자료를 비롯한 모든 음악자료를 함께 배가'하는 도서관이 5개교(41.7%)였다. 또한 1개교는 '도서관의 일반자료와 함께 배가'하고 있었다. 한편, 서가배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분류기호순'에 의해 배열하고 있었다. 이 외에 '음악형식별'과 '기타(학과 편의상)'배열이 각각 1개교로 나타났다.

악보자료 검색도구로서의 목록의 유형은 12개교의 모든 도서관이 OPAC을 사용하고 있었다. OPAC 검색시 악보자료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유형에 대해서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악보 혹은 악보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5개교(41.7%)이다. 이 외에 '단행본'이 5개교(41.7%), '비도서자료'와 '기타'가 각각 1개교를 나타내었다.

<표 9> OPAC 검색시 사용하는 악보의 자료유형

악보의 자료유형	도서관수	백분율(%)
악보 혹은 악보자료	5	41.7
단행본	5	41.7
비도서자료	1	8.3
기타	1	8.3

OPAC에 의한 악보자료 검색방법으로 사용되는 접근점에 대한 응답은 <표 10>과 같다. 악보자료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곡명'이 11개교(9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분류기호'가 10개교(83.3%), '작곡가명'과 '주제명'이 각각 9개교(75.0%) 순이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악곡형식'이 1개교, '작품번호'가 2개교, '연주수단'이 3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보자료에 중요한 '통일표제'를 접근점으로 부여하고 있는 도서관은 6개교로 50.0%를 나타내었다. 검색방법으로서의 접근점은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 즉 전공 학생과 교수에 대한 이해하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 목록의 검색방법으로 사용되는 접근점

접근점	도서관수	백분율(%)	접근점	도서관수	백분율(%)
작곡가명	9	75.0	주제명	9	75.0
작사자명	7	58.3	분류기호	10	83.3
곡명	11	91.7	키워드	7	58.3
통일표제	6	50.0	발행연도	6	50.0
악곡형식	1	8.3	작품번호	2	16.7
연주수단	3	25.0	기타	-	0.0

악보자료의 목록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목록규칙에 따라 구별하여 기술해야 하는 기술 요소들이 있다. 악보자료에 대해 구별하여 사용하는 이들 기술요소에 대한 응답은 〈표 11〉과 같다. 악보자료를 위한 목록기술요소 중 가장 많이 사용한 기술요소는 ‘표준번호(ISMN 등)’로 7개교(58.3%)였다. 다음으로 ‘자료유형표시(GMD)’와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자료특성사항)’이 각각 5개교(41.7%)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OPAC의 접근방법으로 통일표제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6개교였던 것에 반하여 목록기술요소에서는 ‘통일표제’가 3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악보자료의 내용을 연주한 ‘녹음자료와의 관계’는 중요한 기술요소임에도 불구하고 1개교에 불과했다.

〈표 11〉 악보자료 목록시 구별하여 사용하는 기술요소

목록기술요소	도서관수	백분율(%)
자료유형표시(GMD)	5	41.7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자료특성사항)	5	41.7
통일표제	3	25.0
녹음자료와의 관계	1	8.3
표준번호(ISMN 등)	7	58.3
발행처번호나 플레이트번호	3	25.0

악보자료 목록시의 문제점으로는 ‘목록규칙 적용시 악보자료 기술에 대한 어려움’이 4개교(33.3%)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총보와 파트보·분책·합책에 대한 목록 문제’를 비롯 ‘악보에서 출판사항 등의 서지사항 불명으로 인한 목록의 어려움’, ‘통일서명 표기문제’, ‘음악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목록기술을 위해서 악보담당사서는 역시 목록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악보자료 및 음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이용서비스

이용서비스에서는 악보자료에 대한 열람방법·1일 평균 이용자수·열람시간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연체 및 분실처리·날장악보의 보관방법·제본하는 경우·이용자서비스활동·미소장자료

에 대한 서비스·타 기관과의 협력활동·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사서의 자질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악보자료의 열람시간에 대해 응답한 10개 도서관(83.3%)은 대부분 다른 도서관자료의 열람시간과 유사하였으나, 이들의 열람시간은 <표 12>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출기간과 권수는 학부학생을 기준으로 다른 도서관자료의 경우와 유사했다. 대출기간에서는 '7-14일'이 5개교(50.0%)로 가장 많았고, '당일'과 '1-3일'이 각각 2개교, '15일 이상'은 1개교였다. 대출권수는 '5책 이내'가 7개교(70.0%)로 가장 많고, '6-10책'이 2개교, '10책 이상'이 1개교로 나타났다.

<표 12> 열람시간,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열람시간	도서관수	대출기간	도서관수	대출권수	도서관수
09:00-18:00	4	당일	2	5책 이내	7
09:00-17:00	2	1-3일	2	6-10책	2
09:00-17:30	1	4-7일	-		
09:00-21:00	1	7-14일	5	10책 이상	1
08:50-21:00	1	15일 이상	1	15책 이상	-
08:45-17:30	1				

대출한 악보자료의 연체시에는 응답한 10개 도서관 중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가 8개교(80.0%)로 가장 많았고 '연체일수의 2배 대출정지' 및 '대출/이용정지'가 각각 1개교로 나타났으며 연체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악보자료의 분실시에는 '동일자료 변상'의 경우가 4개교(40.0%)로 가장 많았고, '동일자료 또는 2배 금액변상'과 '동일자료 또는 시가 변상'이 각각 2개교, '동일자료 또는 유사자료변상'과 '동일자료 또는 복사비용 변상'이 각각 1개교로 나타났다. 따라서 6개 도서관(60.0%)은 분실시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자료 중 특히 낱장악보나 피스·파트보 등은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보관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낱장악보의 보관을 위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응답한 11개 도서관 중 4개교(36.4%)는 '폴더'를, 3개교(27.3%)는 '보관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1개교는 코팅 후에 보관함을 사용하였다. 또한 2개교는 '제본'을 했고,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은 도서관 역시 2개교였다.

악보자료를 제본하는 경우는 '낱거나 찢겨진 악보'의 경우 6개교(50.0%)로 가장 많았고, '낱장악보나 피스'가 2개교, '총보와 파트보 세트'가 1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제본을 전혀 하지 않는 도서관은 2개교였다.

악보자료에 대한 이용자서비스 활동은 <표 13>에서와 같이 '참고·정보서비스'와 '상호대차서비스'가 각각 7개교(58.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희망악보자료 신청서'가 6개교(50.0%), '복



사서비스'가 5개교(41.7%)였으며, '신착 악보자료 안내'는 2개교로 나타났다.

〈표 13〉 악보자료의 이용자서비스

이용자서비스 내용	도서관수	백분율(%)
참고·정보서비스	7	58.3
복사서비스	5	41.7
신착악보자료 안내	2	16.7
희망악보자료 신청서	6	50.0
상호대차서비스	7	58.3

미소장 악보자료에 대한 이용자서비스에 대하여는 〈표 14〉에서와 같이 '상호대차를 통한 악보자료나 복사물 제공'이 8개교(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소장도서관이나 생산기관 안내'가 5개교(41.7%), '구입 후 제공'이 2개교(16.7%)였으며, '소장도서관에 자료이용의뢰서 발송'과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음'이 각각 1개교로 나타났다.

〈표 14〉 미소장 악보자료에 대한 이용자서비스

이용자서비스 내용	도서관수	백분율(%)
구입 후 제공	2	16.7
상호대차를 통한 악보자료나 복사물 제공	8	66.7
소장도서관이나 생산기관 안내	5	41.7
소장도서관에 자료이용의뢰서 발송	1	8.3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음	1	8.3

악보자료에 관한 타 기관과의 협력활동에 대하여는 '필요시 가끔한다'가 8개교(66.7%), '전혀 안한다'가 4개교(33.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협력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악보자료 봉사상 요구되는 사서의 자질에 대하여는 12개 도서관 모두가 응답하였으나 도서관에 따라 우선순위매김수에서 다르게 답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이 중 '음악에 관한 지식'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헌정보학에 관한 지식', '악보의 출판 및 유통에 관한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에 관한 지식'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사서의 자질에 대한 면담에서도 대부분 '음악주제전문사서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악보자료 담당사서들의 음악에 관한 지식의 부족이 악보자료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의 업무순환제도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악보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15〉 악보자료 봉사상 요구되는 사서의 자질

사서의 자질	우선순위				
	1	2	3	4	기타
문헌정보학에 관한 지식	2	5	3	-	1
음악에 관한 지식	7	2	1	-	1
악보의 출판 및 유통에 관한 지식	1	3	6	-	1
경영에 관한 지식	-	-	-	10	-

※ 기타는 순위 없이 중요한 것으로 체크한 것임.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악분야의 1차자료인 악보자료의 최대한의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충남지역의 음악과 관련된 학과나 학부가 있는 12개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악보자료의 관리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항부문에서는 1) 각 도서관의 조직상 악보자료의 관리부서는 대부분(약70%)이 별도의 관리부서 없이 일반자료와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2) 악보자료의 장서량은 도서관에 따라 아주 큰 편차를 나타내었으며, 주로 클래식음악이 대부분의 장서를 구성하고 있었다. 3) 악보자료 담당사서의 전문영역은 거의 문헌정보학으로 대체로 도서관에서의 많은 경력을 갖고 있었다.

둘째, 선정 및 수집부문에서는 1) 악보자료의 연간 구입비 및 구입량은 도서관에 따라 많은 편차를 나타내었다. 2) 대부분의 도서관은 악보자료에 대한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가 없었으며, 선정시 주요 역할은 주로 관련학과 교수의 추천이 가장 컸다. 3) 악보자료 입수방법은 거의 구입에 의존하였고, 주로 국내의 출판사나 대행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용하는 대행사의 선정은 주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4) 절판된 악보자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었다.

셋째, 조직부문에서는 1) 악보자료 조직을 위해서 대부분의 도서관은 다른 일반자료를 위해 사용하는 같은 분류표(주로 DDC) 및 목록규칙(KORMARC 기술규칙, KCR4, AACR2R)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 및 편목시의 문제점으로 주로 분류표 및 목록규칙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음악지식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2) 악보자료의 배가는 절반 정도의 도서관이 악보자료를 별도로 배가하고 있었으며, 별치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3) 검색도구로서 목록은 모두 OPAC을 사용하고 있었고, 절반정도의 도서관은 검색시 자료유형으로 '악보'나 '악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넷째, 이용서비스부문에서는 1) 악보자료 중 낱장악보·피스·파트보 등의 보관을 위해서 대부분의 도서관은 폴더·보관함·제본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악보자료에 대한 봉사활동 중 특히

타 기관과의 협력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악보자료의 봉사상 요구되는 사서의 자질에 대하여는 음악에 관한 지식을 가장 우선시 하였다. 악보자료 담당사서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문제 역시 음악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악보자료 관리현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에서의 효율적인 악보자료 관리상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조직상 악보자료의 관리부서문제이다. 악보자료는 음악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음악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일반 도서관자료의 관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요 이용자는 음악 전공학생 및 교수이다. 따라서 음악주제의 1차 악보자료를 음으로 표현한 각종 녹음자료 및 관련자료와 함께 별도의 관리부서와 전담사서가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는 각 대학 및 도서관의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나, 악보 및 음악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조직상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악보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수서활동의 필요성이다. 악보자료는 단행본 등의 일반 인쇄자료와 다른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은 도서관의 다른 자료들에 비하여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클래식음악 악보자료의 대부분은 절판율이 높고 가격 또한 높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발행 및 유통상의 특성과 각종 악보자료서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악보공급자, 즉 전문출판사 및 대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파악의 노력이 요구된다. 악보자료에 대한 대학도서관간의 협동수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악보자료 조직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표와 목록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조직에 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악보자료 및 음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악보자료의 조직을 위해서 담당사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분류표와 목록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악보자료 및 음악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악보자료에 대한 기술 및 검색도구로서 OPAC의 보완문제이다. 바람직한 악보자료의 목록시스템을 위해서는 먼저 악보자료 목록 기술시 다른 도서관자료와 구별되는 기술요소들을 충분히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악보자료 검색방법으로 사용되는 접근점은 주 이용자인 음악 전공학생 및 전공교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을 위해서는 역시 사용하는 목록규칙·악보의 특성·음악주제 및 이용자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색시스템에 있어서 악보자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통합검색에서 자료유형으로서 악보 및 악보자료를 구별해 주거나 검색결과에서 이들을 구별해 주는 장치를 통해 악보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악보자료의 보관 및 열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이다. 악보자료 중 특히

날장악보나 피스, 총보와 파트보 세트 등은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보관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책등의 부재로 인해 이용자접근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각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각종 대책을 마련하되, 이용자 접근 및 열람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악보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참고·정보봉사 및 도서관간 협력활동의 필요성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클래식음악의 미소장 악보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가 요구된다. 최대한의 악보자료 활용을 위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활동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음악대학도서관협회나 음악도서관협회 등과 같은 전문기구를 조직, 이를 중심으로 한 악보자료에 대한 각종 협력활동은 시급한 과제라 사료된다. 또한 나아가 국제음악도서관협회(IAML) 등과 같은 국제적인 협회에 가입하여 세계적인 서지제어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고·정보봉사를 수행하고 우리의 우수한 음악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음악주제전문사서의 확보 및 양성의 필요성이다. 악보자료를 비롯한 음악자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서는 음악주제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음악에 대한 지식 없이는 악보자료의 수서·조직 및 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주제전문사서의 확보 및 양성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연수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연수 및 특강 등을 통해 담당사서들이 음악주제 및 악보자료 관리에 관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음악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과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차원에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악보자료는 작곡가에 의한 창작예술작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음악분야의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정보원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의 올바른 악보자료 관리는 우리의 음악문화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최대한의 활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